

한국 남자 시즌 2승 '파란불'



한국의 안시현이 25일 열린 LPGA 코닝클래식 1라운드 9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시현 3위, 최혜정·김인경 공동 6위 등 LPGA 코닝클래식 1R 9명 상위권 포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시즌 두번째 우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18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코닝클래식 1라운드에서 9명의 한국 선수가 상위권에 포진,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선두는 8언더파 64타의 불꽃타를 휘두른 샬로타 소렌스탐(스웨덴)이 꿰차고 장타자 베스 베이더(미국)가 7언더파 65타를 때려 2위에 올랐지만 안시현(23)이 6언더파 66타를 뽑아내 공동3위를 달렸고 최혜정(23.카스코)과 김인경(19)이 공동6위(5언더파 67타)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미현(30·KTF), 장정(27·기업은행),

이선화(21·CJ), 박지은(28·나이키골프), 김영(27) 등 언제든지 우승이 가능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1위로 뒤를 밟았다. 선두에 2타 뒤진 안시현이나 3타차 최혜정과 김인경, 그리고 4타차인 공동11위 그룹 모두 남은 사흘 동안 쉽게 따라 잡을 수 있는 순위라는 분석이다. 꾸준히 '톱10'에 입상해온 안시현은 "그동안 미국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우승이 없어서 아쉬웠다"면서 "모처럼 우승 기회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최종 라운드에서 웃겠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코닝골프장이 입맛에 맞다며 7주 연속 출전이라는 강행군을 마다않고 우승을 노

리고 나선 김미현은 "첫날 68타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선두와)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에 괜찮은 성적"이라고 말했다. 선두에 나선 샬로타 소렌스탐은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동생. 대학 시절에는 언니 못지 않은 실력을 뽐냈으나 1997년 LPGA 투어에 뛰어들기 이후에는 별볼 일 없는 선수로 지내왔다. 2000년 스탠더드레지스터핀대회 우승이 있지만 작년에는 16개 대회에서 14차례 컷오프를 당했고 올해도 3차례 대회에 출전해 한번도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2위에 오른 베이더 역시 2001년 데뷔 이후 7년 동안 우승은 커녕 '톱10' 입상도 두번 밖에 없는 무명 선수. 6언더파 66타를 때려 공동3위에 오른 올해 SBS오픈 우승자 플라 크리머(미국)와 4언더파 68타를 친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이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14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표자회의가 25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우승팀인 진흥고 허양욱 야구부장이 대진표 추첨을 하고 있다.

광주일고-군산상고 개막전 격돌

무등기 고교야구 내달 11일 개막 통한 대진확정 등이 있었다.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다음달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 대통령배 우승팀인 광주 제일고와 지난해 우승팀인 진흥고, 서울고등이 우승을 놓고 치열한 다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앤서니 김 6연속 버디 선두

PGA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최경주는 3언더 67타 공동 9위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올 시즌 PGA 투어 최연소 멤버이자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앤서니 김은 25일(한국시간)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골프장(파70·7천5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9개와 보기 2개로 7언더파 63타를 쳐 테드 파디(미국)를 1타차로 제쳤다. 비록 약전후로 선수 절반이 라운드를 마치지 못해 잔여 경기는 둘째 날로 미뤄졌지만 앤서니 김의 이날 플레이는 신인왕 후보 다웠다. 특히 1번홀을 출발한 앤서니 김은 12번홀까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범한 뒤 13번홀부터 마지막 18번홀까지 버디 6개를 연속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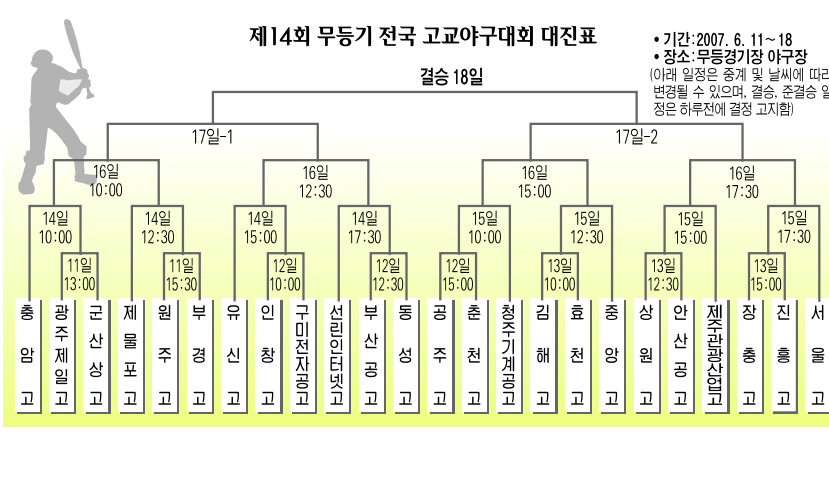
로 속아내는 집중력을 과시했다. 앤서니 김은 후반 버디퍼트 6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홀과 3m 거리 안에 붙여 성공시키는 등 뛰어난 쇼트게임과 퍼트 능력을 발휘했다. 앤서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후반에 퍼트가 아주 잘 따라왔다"면서 "이렇게 잘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루키로서 행운을 누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9위에 오르면서 우승을 향한 견결음을 시작했다. 스윙 개조작업을 진행중인 최경주는 첫날 평균 비거리 311.5야드의 드라이브샷으로 이 부문 공동 9위, 페어웨이 안착률은 64.3%로 공동 40위, 그린 적중률은 77.8%로 공동 28위였다.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1번홀에서 8번홀까지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를 쳐 8위를 달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전국체전 '아트체전'으로 열린다

월드컵 경기장·시청 야외공연장서 사물놀이·B-보이의 만남 등 공연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과시하는 '아트체전'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24일 "전국체전 기간을 전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예술을 즐기는 축제의 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광장에는 2천500평 규모로 상설공연무대를 설치해 사물놀이와 남도민요, 포크송, 국악과 B-보이의 만남 등의 공연을 체전기간 내내 펼칠 예정이다. 시청 야외공연장에서는 야간에 해동동포 선수단을 비롯한 시도 선수단들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의 체험과 함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마련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또 문화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청소년 예술동아리(광천터미널), 우리가라 우리마당 상설공연(월드컵경기장 및 생암공원), 각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도 펼쳐진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변 벽면과 도로 전신주, 벤치, 휴지통 등에도 벽화와 미술 작품을 그리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해 거리 곳곳에서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월드컵경기장과 영주체육관의 3개 화장실도 지역작가의 핸드프린팅, LED제품과 음악을 활용한 작품이 설치돼 예술화장실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기간 내내 시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화예술행사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광주를 찾는 선수와 관광객들이 문화수도 광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chae@kwangju.co.kr



군산컨트리클럽 국내 최대 규모로

퍼블릭 27홀 추가 개장 총 81홀 2004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한 군산CC는 총 128만평의 부지에 코스면적 81만평, 호수면적 47만평을 마련했다. 군산CC는 특히 한 홀의 총 길이가 1천4m (Par 7)인 정음코스 3번홀을 조성, 세계에서 가장 긴 홀을 보유하고 있다. 클럽하우스 역시 하루 평균 1천800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국내 골프장 클럽하우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군산CC측은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깜찍 요정' 사라의 리턴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비치가 25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WTA 이스탄불컵 테니스대회 준결승에서 폴란드 아그니에시카 라드원스키의 공격을 리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재응 '멋쩍은' 3승

50닝 13안타 7실점 불구 팀타선 도움 13-12로 승리

서재응(30·태평양 베이스)이 부진에도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3승에 성공했다. 서재응은 25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 경기에 선발등판해 50닝 동안 안타 13개와 볼넷 1개로 7실점(6자책)했지만 팀이 13-12로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투구 수 84개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53개였고 삼진 1개를 기록했다. 서재응은 지난 14일 토론토전에서 70닝 무실점 이후 세번째 도전 만에 시즌 3승(4패)째를 수확했지만 평균 자책점은 8.10(중전 7.80)까지 올라갔다.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연속 안타를 자주 허용하는 등 아쉬움이 큰 경기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6일(토) ▲일본 프로야구(라쿠텐-요미우리)(13:00·MBC ESPN) ▲프로야구(KIA-SK)(16:30·KBSN Sports), <한화-두산>(16:50·SBS스포츠), <LG-롯데>(17:00·MBC ESPN) 27일(일) ▲PGA 투어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 3R(05:45·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애틀-캔자스시티)(08:00·Xports), (밀워키-샌디에이고)(10:55·Xports) ▲월드리그 배구(한국-브라질)(13:50·KBS1) ▲SK텔레콤 오픈 골프 4R(13:10·KBC) ▲프로야구(삼성-현대)(13:30·KBSN Sports), <한화-두산>(13:50·SBS스포츠), <LG-롯데>(14:00·MBC ESPN) ▲프로축구(광주 상무-경남 FC)(14:15·MBC)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오릭스)(17:50·SBS스포츠) ▲K-리그(전남 드래곤즈-전북 현대)(18:50·KBSN Sports)